

롯데백화점, '아울렛초고' 브랜드 할인 행사

롯데백화점이 6월1~6일 20개 아울렛 점포에서 '아울렛초고' 행사를 연다. 예트로·코치 등 해외패션부터 플로 말프로렌·라코스테·헤지스 등 남성 및 여성 패션, MCM·루이까뜨 등 잡화 및 리빙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4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기존 상설 할인율에서 10~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불황일수록 할인을 대박상품을 팔아라

'역시즌 마케팅'의 역습

무스탕코트 등 고가 이월 겨울상품 제조·유통사 재고처리 할인폭 확대 '5월 여름' 탓에 판매시기도 앞당겨



트렌드

'5월의 크리스마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5월 여름'이 도래한 가운데, 유통업계의 이른 '역시즌 마케팅'이 한창이다.

여름철에 겨울 이월 상품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인데, '5월 여름' 탓에 예년보다 시기가 앞당겨져 판매포인트다.

현대백화점이 대표적으로, 6월1일까지 압구정본점 대형시장에서 '수입 모피 맞춤 서비스'를 진행한다. 전문 디자이너와 상담을 통해 고객 개별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 상품을 제작하고, 주문하는 상품을 겨울 출시 상품 대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게 특징. 로로피아나 원단과 모피를 섞어 만든 디자인으로 유명한 '만조니24' 및 '파비오가파치' 등 유명 브랜드가 참여했다.

TV홈쇼핑도 있다. CJ오쇼핑이 29일 역시즌 상품인 '핑크코트'를 방송한 게 그 예. 지난해 핑크코트 방송일인 6월28일에 비하면 한 달 정도



유통업계에서는 일명 '5월의 크리스마스'라 불리는 '역시즌 마케팅'이 한창이다. 여름철에 겨울 이월 상품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조·유통사 및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 모피브랜드 '만조니24' 모델들이 최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5층 대형시장에서 모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빠른 것으로, 200만원대 상품이 300벌 이상 판매됐다. 반응이 좋은 만큼 6월 말 앙코르 방송을 추가 진행하고, 7~8월 핑크코트 외 다양한 겨울 상품들을 모아 '역시즌 특집방송'을 편성할 예정이다.

GS샵도 동참했다. 최근 '로보 역시즌 특별 방송'을 통해 무스탕코트를 판매했다. 평일 오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5억원이 넘는 주문을 올렸으며, 이에 6월5일 앙코르 방송을 할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소개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이른 '역시즌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제조·유통사 및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역시즌 마케팅에 나오는 겨울상품은 이월상품이 대부분인데, 제조·유통사 입장에서는 신상품을 내놓기 전 이월상품을 처리해 제품 보관 등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제품은 아니지만 잘만 고르면 겨울철에는 비싸서 선풍 지갑을 열기 힘들었던 고가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장만할 수 있다.

김민희 GS샵 패션팀 차장은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역시즌 마케팅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며 "불황일수록 할인이 큰 상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역시즌 상품을 구입할 때는 고급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은 피하고, 가격이 높아 겨울에 선풍 구입하기 어려웠던 아이템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경제현장.jpg

NH농협은행, 가뭄피해 농가 찾아 굶은 땀방울



NH농협은행이 30일 영농철을 맞아 경기 양평군 청운면 증안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박철홍 NH농협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여신심사부서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이·수박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정리·잡초 뽑기 등을 했다. 또 증안마을 특산물인 오이·수박 수확 시에 직접 구매하고, 거래 기업 및 지인들에게 소개활동을 펼쳐 농산물 소비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NH농협은행

스포츠가 가상현실 만나 더 생생해진다

삼성 6월3일 UFC 212 이벤트 생중계 KT와 SKT도 야구·축구 등에 VR 적용

스포츠가 가상현실(VR)과의 접목으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국내 정보기술(IT)기업들은 VR로 스포츠를 시청하는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6월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UFC 212'를 VR로 생중계한다. 기어VR 사용자들은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하고 '삼성 VR' 앱을 통해 실제 링 옆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생중계는 기어VR 헤드셋이 있어야 시청할 수 있지만, 이후엔 앱을 통해 하이라이트 360 영상 등을 클릭시 최신 기종 스마트폰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KT는 이미 다양한 스포츠에 VR을 적용했다. 지난해 프로야구 모바일 VR 생중계를 한 데 이어 올해는 KT위즈파크에 '5G존'을 운영한다. 전광대 형태의 관람구역에선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360도 VR로 경기를 볼 수 있다. KT는 '국제축구연맹(FIFA)



삼성전자가 가상현실(VR) 기술로 생중계 예정인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FC 212' 경기 포스터. 기어VR 사용자들은 실제 링 옆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20세 이하 월드컵 코리아 2017'에서도 VR 서비스를 했다. 20일 한국-기니전과 23일 한국-아르헨티나전에서 5G 시범망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표 서비스 중 하나가 '360도 VR'이었다. KT는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도 360도 VR 라이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 '5G 스타디움'을 시연했다. 360도 VR 존에선 VR기기 등을 통해 특수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경기영상을 관람할 수 있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소니 '엑스페리아XZ 프리미엄' 6월 8일 출시



소니코리아는 스마트폰 '엑스페리아XZ 프리미엄'(사진)을 국내에 6월 8일 공식 출시한다. 세계 최초로 4K HDR 디스플레이(5.5인치)가 적용됐다. 모션 아이 카메라를 탑재해 수퍼 슬로우 모션 비디오 및 예

측 캡처 기능을 제공한다. 또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서 최초로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했다. 엑스페리아XZ 프리미엄은 이달 30일부터 6월7일까지 소니스토어를 비롯해 SK텔레콤 티월드다아일랜드,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주요 백화점 및 소니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 접수를 받는다. 소니스토어 판매가는 86만9000원이다.

김명근 기자

분짜·나시고랭·쁠룻꾸딩 시식기회 잡아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국제관광전 6월1일 개막 아세안 음식축제 등 행사 다채

'오바마 대통령도 맛 본 베트남 분짜, CNN 선정 세계최고음식 2위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말레이시아의 소울푸드 쵸렛꾸딩.'

6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 동남아 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코엑스 B홀에 진행되는 '아세안 음식축제'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표하는 음식, 커피, 차를 맛보고 국가 관광청과 주한 대사관이 추천하는 '현지에서 꼭 먹어보아야 하는 음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세안 음식축제'는 지난해 처음 등장해 30가지 아세안 음식을 소개해 4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3500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올해는 여기에 아세안 국가들의 커피

와 차 등을 추가해 프로그램을 한결 더 풍성하게 꾸렸다.

아세안 10개국 셰프들이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베트남 분짜, 말레이시아 텃당과 쵸렛꾸딩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어 시식기회를 제공하고, 아세안 커피를 소개하는 바리스타쇼, 아세안을 여행할 때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현지 맛집 추천, 아세안 문화 공연 등 행사가 열린다. 시식 쿠폰은 선착순 사전등록과 사전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사전 배포했으며 현장에서는 '아세안 여행' 모바일앱 다운로드 이벤트에 참여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세안 음식축제와 함께 코엑스 A홀에서는 '아세안 관광부스'를 상설 운영한다. 50가지 스페셜 관광 패키지 정보, 아세안 문화관광 안내책자 등 홍보물, 아세안 지도 퀴즈 이벤트, '아세안 여행' 모바일앱 다운로드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히, 아



6월1일 개막하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는 동남아 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아세안 음식축제'가 특별 이벤트로 진행된다.

세안 50주년과 '아세안 방문의 해(Visit ASEAN@50)' 캠페인을 기념해 실시하는 '50개의 동남아 특별 관광 패키지'는 기간별(4~7일, 8~11일, 12~15일 등), 테마별(크루즈 패키지, 유적지 탐험, 생태관광 등)로 특별한 동남아 관광 패키지를 소개한다. 50가지 관광 패키지는 아세안 방문의 해 공식 웹사이트(visitasean50.com/top-deal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봄 여행주간 프로그램 히트다히트!

참여 관광객 40만2000명 전년 대비 9만6000명 늘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진행된 2017년 봄 여행주간에 지역 대표 프로그램 참여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에 따르면 봄 여행주간에 전국 8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행주간 지역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 관광객이 40만2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봄 여행주간 프로그램(17개 지역) 관광객 30만6000명에 비해 9만600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지역 대표 프로그램은 17개 광역 지자체가 권역별로 운영시기를 겨울, 봄, 가을 여행주간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봄 여행주간 프로그램은 서울, 경기, 대구,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등 8개 지역이 참여했다.

봄 여행주간 주요 프로그램 운영결과, 전남은 '함평나비축제 가족몰이' 행사에 30만명, '기차타고 떠나는 남도여행'에 2940명, '남도 명품길 걷기 행사'에 1200명이 참가했다.



2017년 봄 여행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이 대폭 늘었다. '남도 명품길 걷기 행사'에는 이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인기를 끌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경남은 '진짜 도깨비 찾기 경남여행'에 1만8771명, 창원시는 '도깨비 신부찾기 프로그램', '밤 도깨비 여행 행사'로 1만499명, 산청군은 '함노화 웰니스 체험'을 진행해 2750명이 모였다. 이밖에 지역 도자기 축제와 연계한 경기도의 프로그램에 1만4452명이 참가하는 등 축제와 체험 이

벤트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이 좋은 성과를 냈다.

향후에도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역 대표프로그램을 여행주간 핵심 관광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NS홈쇼핑 "손바닥 농장 팜팜에 오세요"

6월3일 성남 판교화랑공원에서 열려 텃밭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

NS홈쇼핑이 6월3일 경기 성남 판교화랑공원에서 '2017 환경의 날 생태 환경 축제, 손바닥농장 팜팜'을 연다.

NS홈쇼핑과 판교생태학습원이 체결한 '환경경영 후원 프로그램 협약'의 일환, '팜팜'은 손바닥을 뜻하는 'Palm'과 농장을 뜻하는 'Farm'의 결합어로 '도시 속 작은 텃

밭'을 의미한다.

도시인들이 손바닥 농장 체험을 통해 텃밭이 주는 즐거움과 건강한 먹거리를 경험하고, 도시에서의 생태·환경적인 삶의 실천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놀이와 무료 경품 행사가 무료로 진행된다. 도상철 NS홈쇼핑 대표이사는 "도시인에게 생태 환경적 삶 실천을 돕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우리 사회에 자연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신한카드, 신한은행 연계 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신한은행과 함께 전략 시너지 상품 2종을 내놓았다.

10대들을 위한 '틴즈 플러스 포니 체크카드'(사진)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한 주거래 소호 사업자 체크카드'이다.

'틴즈 플러스 포니 체크카드'는 신한은행의 용돈관리 앱 '신한 포니'에서 가족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앱과 체크카드를 통해 자녀의 용돈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 '신한 주거래 소호 사업자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주거래 소호 사업자 통장'과 연계된 카드다. 카드 이용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세부회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신한금융그룹 내 그

룹사들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과 생활서비스 전반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 경쟁력 높은 상품을 지속 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한카드